

---

# 제49호 방송심의보고서

---

2019.11.29.~12.0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19. 11. 29.	시청률	0.000

###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제45회에서는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 등을 소개한 <단박톡>과 90대 실향민이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는 애절한 사연을 소개한 <그리운 편지>가 방송돼 주목도를 높였다.

<단박톡>에서는 남북대화가 침체국면을 맞은 가운데 남북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본 한반도 화합의 길을 돌아보고 향후 돌파구를 모색해보는 이슈여서 매우 의미있는 기획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동안 남북합작 드라마 제작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의 한류 열풍과 북한 영화계의 궁금증을 북한문화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기획이 흡인력을 높였다.

‘북쪽 어머니께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다룬 <그리운 편지>는 90대 이산가족의 사모곡으로 심금을 울렸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삽화로 표현하고 북한 고향을 방문하는 가상현실 제작기법이 ‘리얼리티’를 높였다.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의 60%가 80세 이상 고령자여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내레이션 멘트가 절박함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 ■ 단박톡

북한의 드라마 및 영화 제작 과정이 남한과 다른 부분을 소개하여 북측의 영화 및 드라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주인공은 사람이어야 하고 역사물의 영화를 주로 제작하고 액션 연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북한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 제작되는 부분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북한에서 한류 바람은 드라마 부문의 주제가 시한부 및 비련의 주인공 소재를 원치 않아 예능을 선호하여 예능에서 유행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폐쇄적인 북한에서도 우리의 예능과 미국드라마가 허용되고 볼 수 있다는 것에 이제까지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빨리 깨고 버려야 새롭게 제대로 바라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 ■ 그리운 편지

가상현실로 북한의 고향 땅 풍경을 만든 영상으로나마 고향 땅을 밟은 김구현 할아버지의 애달픈 사모곡이었다. 70여 년간 부모님과 생이별하여 가슴 맺힌 어머니의 대한 그리움이 가상현실로라도 찾아가서 목 놓아 부르는 모습에 감정이 이입되었다.

### 【참고사항】

08:05 ‘체제 선전용 목적이 강한’, 08:42 ‘오로지 체제 선전용’, 08:59 ‘체제 선전은 당에서 할 일’ 등 체제는 ‘체제’로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 경제		
방송일자	2019. 11. 29.	시청률	0.090

### 【총 평】

최근 아파트값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이후 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초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종부세 고율 인상, 건보료 인상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 동향과 내년 전망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동향지수를 살펴보고, 아파트값 상승 원인과 전망, 정부의 추가 규제 카드 등을 다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실거래조사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점검했는데, 아직 가격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소비자심리를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 【구성 및 내용】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 대책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및 심지어 저평가된 지방 광역시로 옮겨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풍선 효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주었다.

특히, 경기 지표와 부동산 조사발표 등 ‘통계들’을 읽어주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실어줬고, 정책과 시장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강력한 대책 필요성 및 방안’을 소개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청주, 부산,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서 투기수요가 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의미했고, 왜 소비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다양한 데이터로 근거를 제시하고 주변 요인을 분석해 그 실체를 잘 드러냈다.

입찰취소 사태로까지 진행된 ‘한남3구역재개발’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른 여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타격을 받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핫이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시공입찰 건설사별 주요 제안 사항은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헤치는 조건의 내용이었다.

입찰이 무효화 되어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정의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규제가 강력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 【참고사항】

<알뜰신잡> 코너에서 ‘치아건강 지키기’를 다룬 점은 <톡톡사이다 경제>의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부자연스러웠다.

프로그램	메디컬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방송일자	2019. 12. 1.	시청률	0.028

### 【총 평】

<메디컬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제14회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70세 이후 사망원인 1위인 데다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고 사망률이 급증하는 심장질환을 다뤄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의식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성 기획이 돋보였다.

이번 ‘생명의 끝과 시작, 심장질환’편에서는 24시간 365일 뛰어야하는 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메디컬 다큐 형식으로 심장질환의 증상-원인-치료-예방 관련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환자별 사례연구 구성으로 구체적인 증상과 회복, 재활치료 과정, 가족과의 감사표현 등을 통해 ‘건강 더하기 행복’ 컨셉트 기획의도를 살린 부분도 긍정적이다. 심장 부정맥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이 실시돼 환자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정책홍보의 역할도 수행했다.

### 【구성 및 내용】

어느 계절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심장질환을 다룬 것은 시의 적절했고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메디컬 다큐답게 임상사례를 원인, 증상, 치료별로 상세히 설명해 의료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돋보였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조이는 듯한 증상, 흡연 등 생활습관 원인, 막힌 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치료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관상동맥질환으로 불리는 심근경색을 중심으로 심장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했고 특히 심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높였다.

임상 사례 위주의 심장 질환 소개 방법은 심장질환을 이해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심장 건강을 관리하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학적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고, 연령별 질환 관리할 사항이나 가족력 등을 고려한 개인 건강관리 수칙 및 균형 잡힌 식단 등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부분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보였다.

고대구로병원에서 두 가지 케이스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케이스 모두 세 가지 케이스가 소개됐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 두 케이스에 집중했다면 내용을 좀 더 탄실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심장 부정맥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덜게 됐다는 홍보 역할도 수행해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알리는 계기였다.

### 【참고사항】

‘생명의 시작과 끝, 심장질환’이었는데 ‘심장질환’보다 ‘심장’이 좋았을 것 같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9. 12. 1.	시청률	0.302

### 【총 평】

<KTV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시즌3> 제9회는 강원도 산마루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 김은숙(43)씨와 폐품 조각가 남편 정춘일(49)씨의 귀촌일기 “미용사와 조각가, 그들이 산으로 간 까닭은?”을 담았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귀농한 스틸아트 조각가와 미용사 부부의 이야기는 보글보글 곰삭은 맛이 날만큼 정겨움이 묻어났고 현실적이었다. 귀농 9년차의 부부를 소개했는데 처음 귀농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임을 회상하는 장면도 많았지만 지금 시기가 농한기여서 그런지 그렇게 바쁘거나 고단한 모습 보다는 누구나 생각하는 귀농의 이상적인 그림 위주로 그려졌다.

귀농 일상만을 소개하는 것까진 좋으나 주인공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줘야 주인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왜 갑자기 귀농하기로 결심한 건지, 무엇이 귀농하게 만들었는지 등 사적인 부분도 살짝 담았으면 한다.

### 【구성 및 내용】

강원도 춘천의 한 깊은 산골로 귀촌한지 9년차가 되는 정춘일 조각가, 김은숙 미용사 부부는 귀촌을 하면서 직접 수작업으로 귀촌생활의 터전을 하나하나 일궈다. 그곳은 부부의 일터이자 집으로 삶의 소중한 공간이다.

아침일과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로 떠나면 잠시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내의 직업은 산골 미용실 원장님으로 서울 도시에서 미용일을 했을 때는 돈은 더 벌었을지언정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세세히 살피지 못했을 것이다. 미용실은 근처에서 일하시다 오시는 할머니 손님들이 많다. 세대를 초월한 원장님과 손님들의 수다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할머니 손님들이 편찮으셔서 뜸하다.

예술가인 남편은 스틸아트를 하는 작가로 고물수집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재료들로 작품을 만든다.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물들을 수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고물상에서 주워온 대야를 선물하기도 했다. 몇 년 만에 좋은 걸 골라왔다고 만족하는 아내다.

어둠이 찾아온 시골의 저녁, 귀촌을 하여 가족들간의 시간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다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거의 3주 만이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귀촌을 하면서 소소하게 양봉을 시작한지 몇 년차로 아직 꿀 양도 매번 다르고 서툴지만 벌치는 재미는 꽤 쏠쏠하다.

이 프로그램이 귀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 가족애, 그 중에서도 부부애를 강조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특히 그러한 부분이 강조가 잘 되었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19. 12. 2.	시청률	0.025

### 【총 평】

제352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현안,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뉴스가 앞 부분에 주요 뉴스 리포트로 배치돼 주목도를 높였다. 또, 여야 대치로 예산과 주요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예고 기사는 단신으로 처리됐다.

이 밖에 소비자 물가동향, 한파에 대한 분야별 영향 예보, 서울 도심 미세먼지 특별관리 리포트 등 경제와 생활정보 관련 리포트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남북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관훈초청토론회 내용을 채효진기자의 리포트로 톱 뉴스로 배치한 편집은 적절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핫이슈가 된 상황에서 4차 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협상대표팀의 멘트와 조정안 핵심, 전망 등을 깊이있게 다룬 박성욱기자의 리포트 기획도 주목을 끌었다.

- "남북 협력분야 많아...금강산시설 정비 필요"
- 방위비 4차회의..."수용 가능한 부담 위해 최선"
- 신임 EU 집행위원장과 통화..."옳은 변화 기대"
-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예산·법안 처리 당부
- 靑 "특감반, 법·원칙 따라 업무 수행"
- 11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0.2% ↑
- 한파, 분야별 '영향예보'로 대비하세요
- 공공청렴지수 세계 19위...뇌물 위험도 '낮음'
-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주민등록증 내년 도입
- 어제부터 서울 도심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
-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 개소..."협력 강화"
- 한랭 질환·낙상사고...겨울철 주의하세요!

### 【참고사항】

오후 뉴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성 강화의 보강이 필요하다. 기자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오후 2시 뉴스이니 만큼 주요 뉴스 1-2건은 리포트 대신 전화연결로 처리하면 현장성과 뉴스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단신 뉴스에서 새로운 모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19. 12. 5.	시청률	0.019

##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이번 방송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입장에서 사고발생 사례의 소개, 교통 및 보행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사고 발생률 감소 등에 대해 내용을 전개했다. 특히 교통약자 중 고령자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갔으며 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수치와 사건사고 사례,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방안들에 대해 경찰, 공단관계자, 그리고 고(故)김민식군의 아버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실태에 관해 다루었는데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시점에서 안전을 다루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룰 문제였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룬 적은 있지만 최근에 민식이법 발의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었다.

### ■ 교통약자 어르신 편

고령인구의 증가 및 이들의 이동욕구 증가로 고령운전자는 5년 전에 비해 48%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신체적 능력, 인지 능력의 저하로 도로 위 각종 돌발상황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는 대책으로는 면허갱신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징 및 도로교통법, 운전능력 자가진단 등을 전달하기도 하며,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통해서도 고령운전자의 절대적 수치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 ■ 교통약자 어린이 편

어린이 교통사고도 심각한데 작년의 경우 12,500여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고 3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OECD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스쿨존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포함될 확률이 높으며 차도에서의 위험한 행동은 물론 어린이의 위험시 대응이 미숙한 것도 그 이유다.

### ■ 교통약자 사고에 대한 당부

운전자의 주의를 물론 어린이의 돌출행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능력 저하 및 인지능력 저하에 대해 배려하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